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밖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및 단체가 진행하고 각 지역의 자치센터에서도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며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8년 전국 90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프로그램별 안내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미술관 속 작품들은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쉬고 있고,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해 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술관 안팎을 탐색하며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내 손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다보면 시각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게 됩니다.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박물관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의 이야기는 다시 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만나 오늘의 이야기를 덧입히기도 하고 속속들이 뜯어보기도 하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그 동안 상상했던 예술가가 되어볼 수 있다면 어떤 예술활동을 해보고 싶은가요?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안정적인 공간과 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술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건축문화 프로그램	우리가 사는 집은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매일 걷는 길은 장소와 장소 간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집 앞 공원은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있는 건축적 요소를 탐색하고, 각자의 상상을 더해 새롭게 구현해 봅니다.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주말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말에 가족들과 훌쩍 떠나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예술가들과 함께 1박 2일의 여행을 떠나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재료들로 멋진 예술 작업을 해 봅니다.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음악을 듣고 느끼고 경험하며 음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봅니다. 각자 소망했던 악기를 손에 쥐고 연주하다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덧 음악이 흐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선율에 담아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청소년X예술가 프로그램	<p>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청소년만의 이야기를 예술가와 함께 꺼내보고, 특유의 감성을 더해 작품으로 완성해 봅니다. 청소년×예술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영화, 연극, 음악, 글 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만나 예술작업을 이어갑니다.</p>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p>어린이들에게는 각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확고한 예술 세계와 개성을 가진 시각예술 작가들이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어린이들의 세계는 드로잉, 사진, 설치, 이야기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발산하게 됩니다.</p>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p>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도 마음속에는 늘 음악이 흐릅니다. 악보를 그릴 수 없어도 선율과 리듬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악기 연주자와 작곡가들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작곡하고, 작곡한 음악을 관객과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p>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p>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리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술과 음악, 문학과 무용, 영상과 퍼포먼스 등 예술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일이 가능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가 아닌 둘, 둘이 아닌 셋처럼 더욱 큰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p>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	<p>일상을 함께 보내는 가족들이 일상, 감정, 생각 등을 상상력과 문학적 기법을 통해 글로써 창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글로써 창작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모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더욱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p>
 지역연계 프로그램	<p>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p>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p>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 미술, 공연 등 분야 또는 세부 장르별 예술작품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p>

※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 시점이 상이하며 일부는 이미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었을 수 있음. 이에 참여 희망 시 각 프로그램별 별도 문의 필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 참조)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 및 SNS

 www.toyo.or.kr	 @toyoschool	 @toyo_school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검색
---	--	---	--

※ 홈페이지에서 세부 프로그램 정보 확인 가능하며, 지역별 / 주요 장르별 / 운영일정(월별) 검색 가능